

벼논에서 벼멸구(*Nilaparvata lugens*) 약충의 혁신적인 식별법

조성래, 이동운¹, 추호렬², 박정규², 신현열³, 김형환⁴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¹상주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²경상대학교 응용생물환경학과 농업생명과학원

³경상남도농업기술원 작물과, ⁴원예연구소 원예환경과

우리나라의 벼논에는 벼를 기주로 하는 여러 종류의 멸구, 즉, 벼멸구, 애멸구, 흰등멸구들이 혼재하고 있지만 이들간의 구분은 매우 어렵다. 이들의 정확한 식별은 예찰과 방제 전략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특히, 벼멸구는 가장 중요한 벼의 해충이기 때문에 쉽고 혁신적인 식별 방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벼논에 분포하고 있는 벼멸구의 정확한 분류를 위하여 벼멸구, 애멸구, 흰등멸구의 약충을 조사한 결과, 벼멸구 약충은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다른 두 종류의 멸구와 뚜렷이 구분되었다. 즉, 벼멸구 약충은 겹눈 아랫부분과 촉각 사이에 흰색광택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애멸구나 흰등멸구의 약충에는 없었다. 그리고 흰색의 광택부분은 부화직 후가 가장 선명하였고 령기가 진행될수록 약해지다가 성충이 되어서는 없어졌다. 따라서 두 부의 흰 발광 부분은 벼멸구 약충의 혁신적인 판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